

주관적인 목소리 이상 여부인지에 따른 후두 질환 유무

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

우 승 훈

목 적

본 연구는 주관적 목소리 이상 여부와 후두 질환과의 관련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.

대상 및 방법

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1년 까지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s의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통계적으로 선택된 19세 이상의 19,636명들을 대상으로 하였다. 대상자들은 주관적인 목소리 이상에 대한 설문 조사 후 후두 내시경을 통해 후두 질환여부를 조사하였다.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카이제곱 분석을 하여 주관적 목소리 이상 여부와 후두 질환과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.

결 과

Vocal nodule과 polyp은 total(2008~2011)로 볼 때, nodule이 있는 대상자에서 주관적 목소리 이상을 인지한 경우가

27.7%로 nodule이 없는 대상자에서 주관적 목소리 이상을 인지한 경우인 5.9%보다 높았다($P<0.001$). polyp이 있는 대상자에서 주관적 목소리 이상을 인지한 경우가 23.0%로 polyp이 없는 대상자의 5.9%보다 유의하게 높았다($P=0.003$). Cyst와 Leukoplakia가 있는 대상자에서 목소리 이상 인지여부에 대한 비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(each $P=0.081$, $P=0.362$).

결 론

Vocal nodule과 vocal polyp의 경우 약 25% 정도에서 주관적인 목소리 이상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다. 그러나 cyst와 leukoplakia의 경우 주관적인 목소리 이상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. 따라서 향후 음성질환의 검진과 계획 설정 시 본 결과가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여겨진다.